



‘2025 광주민족예술제’가 오는 25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축제의 모습. <광주민예총 제공>

호남 여성의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

동학의 들불에서 광주의 오월까지. 격랑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었다. 전라도의 여성들은 분단과 전쟁, 폭력과 상처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희망과 강한 생명력을 놓지 않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도 여성의 삶을 예술로 풀어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광주민예총·회장 박종화)이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2025 광주민족예술제’를 연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빛의 여정 : 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여성의 발자취를 예술로 형상화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번 예술제의 하이라이트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총체극 ‘빛의 여정’이다. 작품은 동학농민운동의 격랑 속에서 분단과 전쟁, 그리고 1980년 오월항쟁을 지나며 시대를 지탱해온 여성들의 서사를 춤과 음악으로 엮는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동학의 여장군 이소사가 있다. 조선 말 22세의 나이에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인물로 농민군을 이끌고 백성을 위해 일어섰다 끝내 쓰러진다.

그녀의 혼은 어린 소녀 점화에게로 이어지고, 점화는 교사이자 광복군 간호장교로 성장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념의 벽에 가로막히고 ‘빨갱이’로 몰린다.

한편 지리산 민가의 소녀 순분이는 반딧불을 쫓으며 분열된 세상이 다시 하나 되길 꿈꾼다. 세월이 흘

‘2025 광주민족예술제’

광주민예총,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복 80주년 기념 총체극 ‘빛의 여정’

전시·버스킹·체험프로그램 등 다채

리 1980년 광주, 순분이는 가수가 되어 시민들과 함께 노래로 저항의 목소리를 잇는다. “우리는 오늘 밤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들불의 화산이 되어 민족의 해방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순분의 절구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앉는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광장을 밝힌 ‘키세스 시위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작품은 작은 불빛이 이어져 혼불이 되고, 다시 은원봉의 물결로 번져가는 여정을 그리며 마무리된다. 풍물과 판소리, 마임, 합창이 어우러진 무대는 시대를 견뎌낸 여성과 민초들의 혼이 여전히 이 땅을 지켜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찬일 광주민예총 이사장은 “이 공연은 여성의 역사를 예술로 되살려 공동체의 기억을 다시 쓰는 자리”라며 “예술이 과거의 기억을 오늘의 공간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는 총체극 외에도 전시, 버스킹, 체험 프로그램



김희순 ‘달빛 담은 나뭇잎과 함께’

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오후 1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입구에서 열리는 전시 ‘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에서는 시화·사진·그림 등 60여 점의 작품이 시대별 여성의 삶을 비춘다. 해방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와 예술적 자의식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여성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로 향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버스킹 무대에서는 연희단 아리가 사물놀이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청랑의 댄스 공연과 푸른솔 시민합창단·광주전남작가회의의 협업 무대, 아리아리국악단의 ‘우리 악기로 듣는 가요’가 축제의 흥을 더한다.

체험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사투리 시낭송’, 광주민족미술인협회의 ‘진관사 태극기 액션페인팅 & 인물 드로잉’, 목요사진의 ‘사진으로 만나는 웅녀에서 신여성까지’ 등 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시민 참여형 ‘네 컷 사진 부스’도 운영된다.

박종화 광주민예총 회장은 “예술은 그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움직이는 힘”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술이 공동체의 언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생명평화미술행동 작 ‘피어라! 민들레’

‘이주, 정착, 그리고 희망-땅과 대륙 사이의 삶’

UAF2025 실행위원회, 11월10일까지 교토·우토로서 ‘아트페스티벌’

일본 교토 인근의 우토로라는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재일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동포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일궈왔다. 인문적 관점에서 우토로는 이주의 삶, 공생과 평화 등을 상징한다.

해방 80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우토로를 모티브로 ‘우토로 아트페스티벌 2025’(UAF 2025)가 교토와 우토로에서 열리고 있다.

UAF2025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아트페스티벌이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이주, 정착, 그리고 희망-땅과 대륙 사이의 삶’을 주제로 교토와 우토로에서 펼쳐진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교토코리야학연구소, 도시샤코리야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을 비롯해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시민자유대학 등이 협력한다. 특히 광주의 유재현 감독, 정현주 수석큐레이터가 실행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유재현 감독은 “우토로 마을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물과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가미했다”며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오기까지의 경계로서의 물, 분단국가의 경계를 합의하는 물, 동포들의 삶 속에 내재된 고난의 눈물 등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주요 행사로 오프닝 마당극, 우토로 공연, 대공연, 현대미술전시(괴테 인스티튜트 빌리카모가와, 도시샤대학, 우토로평화기념관),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하전남, 이기바위쿠르르, 테루야 유켄, 후지이 히카루, 최지목, 기술기, 생명평화미술행동(홍성담 외 5인) 등이 참여하며 가수로 광주 출신 김원중이 도시샤대학 하디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전 세계에서 온 12팀 예술가들의 14점이 전시실과 거리에 걸린다. 특히 재일동포 이주사를 집약한 결계그림 연작 ‘피어라! 민들레’(2점, 각 10m와 11m)가 우토로평화기념관, 도시샤대학에 설치된다.

정현주 큐레이터는 “150년 전통의 도시샤 대학에 결계그림이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도시샤대학은 운동주 시인이 다녔던 그의 시혼이



오는 11월 10일 일본 우토로 등에서 열리는 ‘우토로 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가수 김원중.

깃든 공간으로, 우리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토로와 광주는 억압과 상흔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통된다. 광주가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권과 평화를 알렸듯이, 우토로는 식민과 차별의 시간을 매개로 평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참여 작가의 면면도 이색적이다. 하전남은 ‘근소한 차이의 공간’이라는 작품으로 재일동포들의 뿌리와 모습을 반영하며, 테루야 유켄은 ‘먼 곳에서 온 퍼레이드’라는 작품을 통해 전후 미군의 군사점령에 맞선 오키나와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한다.

생명평화미술행동의 ‘피어라! 민들레’는 재일한국인들이 탄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현악 6중주단.

<이건음악회 제공>

가을 물들이는 북유럽의 선율 ‘이건음악회’

11월 19일 광주예술의전당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울림을 전하는 북유럽의 선율이 광주를 찾는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건(EAGON)이 주최하는 ‘제36회 이건음악회’가 오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광주 공연은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 이건음악회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NCO) 현악 6중주단을 초청해 북유럽 특유의 정제된 감성과 실험적인 해석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1977년 창단된 NCO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26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명문 앙상블로 클래식과 시카예술·연극·시낭송을 결합한 혁신적인 무대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아왔다. 예술감독 페가 쿠시스토의 지휘 아래 음악의 경계를 넓히며 ‘살아 있는 클래식’을 구현하는 단체로 평가받는다.

이번 광주 무대에는 NCO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신들만의 감성과 에너지로 풀어내며 북유럽 특유의 차분하고 투명한 음색으로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각 곡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클래식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예술적 시도가 더해진다.

이건음악회 관계자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NCO) 현악 6중주단이 선사할 북유럽의 감성과 깊이 있는 사운드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 가진 나눔의 가치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건음악회는 11월 15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부산(16일), 대구(17일), 광주(19일), 인천(20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공연은 무료이며, 10월 20일까지 이건음악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티켓 응모 이벤트가 진행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 작가 작품 ‘제로베이스’에서 만나보세요

전남문화재단·서울옥션 온라인 경매…지역작가 9명 참여

지역 작가들의 시장 진입을 견인하고 창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경매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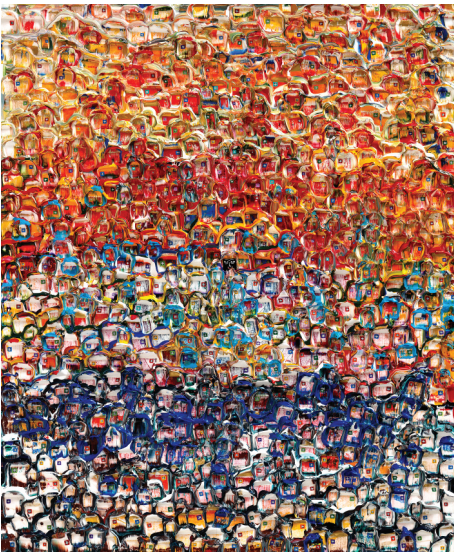
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를 지난 13일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했다.

올해 ‘제로베이스’ 경매에는 9명의 전남 작가가 참여한다. 신진·중견 작가에는 강영자, 박주하, 소진영, 홍원표 작가가 처음 제로베이스에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제로베이스를 통해 작품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리유니온’(Reunion) 작가에는 고자분, 김성걸, 이호국, 정선영, 한임수 작가가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작품가를 0원에서 시작해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관람객이 각자의 안목으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경매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되고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사전에 실물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프리뷰 전시도 마련됐다. 전남도청 갤러리(31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11월 14일부터 19일까지)에서 경매 작품을 실견 가능하다. 김



고차분 작 ‘ZB전남-스토리’

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로 6년째 펼쳐지고 있는 제로베이스 경매는 지역 작가들의 시장 진입과 창작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경매에 출품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프리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로 가을 축제 즐기세요”

광주문화재단, 10월 한달간 결제 지원…충장축제·아트페어 등

가을빛이 짙어지는 10월 광주의 거리와 들판, 전시장이 축제의 설렘으로 물든다. 시민들은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김치 향 가득한 시장의 풍경부터 역사 물결 넘실대는 강변, 그리고 예술의 열기로 가득한 전시장까지 두루 오가며 문화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10월 한달간 광주 주요 축제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를 지원한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지역 축제와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연계 대상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15~19일, 충장로·금남로 일대), ‘서창역새축제’(16~19일, 영산강변 나눔누리숲), ‘광주국제아트페어’(23~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김치축제’(31일~11월 2일, 광주시청 광장) 등이다.

거리의 흥겨움이 가득한 충장축제에서는 분식, 케밥, 건강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와 수

공예품, 예술상품을 판매하는 23개 임시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역세가 장판용이하는 서창역새축제에서는 캠핑용품과 수공예품, 닭집지·호두정과 등 지역 특색이 담긴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광주국제아트페어에서는 현장과 온라인(NOL 티켓) 모두 문화누리카드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 이어 광주김치축제에서는 대동령상 수상 김치업체와 명인들의 손맛이 어우러진 20여 종의 김치를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공연·전시·영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문화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인 이용이 권장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